

# “확진자와 동선 겹칠까 걱정... 버스 손잡이도 안잡아요”

## Q 르포 | ‘서울 최다 확진’ 종로구 가보니

서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온 종로구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종로구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나 주민들은 매일 업데이트되는 신종 코로나 확진자 현황을 체크하며 자신과 동선이 겹치는 코로나19 환자가 있는지 여부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25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서울 지역 신종 코로나 환자 33명 중 10명이 종로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날(24일) 오전 다이소 종각점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전에 없던 진풍경이 펼쳐졌다. 마스크를 사려는 사람들이 이른 아침부터 건물 1층부터 3층까지 줄을 섰는데도 자리가 모자라 매장 안을 빙 둘러 밖까지 대기 줄이 늘어난 것.

다이소 직원 A씨는 “오늘 아침에 매장 3층까지 사람들로 꽉 들어차서 깜짝 놀랐다”면서 “아마 어제(23일)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로 올라가서 그런 것 같은데 정말 처음 보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다이소는 마스크 사재기를 막기 위해 1인당 마스크 구매 개수를 제한하고 있다.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장당 1000원

편의점·마트·약국 마스크 동나 다이소엔 매장밖까지 대기 행렬 버스 탑승하자마자 세정제 사용

불안감에 마스크 두 겹 쓴 시민도 “식당·카페, 공용 화장실 꺼려져” 종로 보건소 일반 진료업무 중단

에 최대 3개까지, 일반용 마스크는 30개 입 한 박스(1000원)만 살 수 있다.

같은 날 종로구에서 편의점 3곳과 약국 3곳, 마트 2곳을 더 돌아봤지만 보건용 마스크를 구할 수 없었다. 서울YMC A 근처에 있는 한 편의점 직원은 “마스크가 하루에 20장 정도 들어오는 데 요새는 그것도 잘 안 갖다 준다”면서 “매장에 진열해놔도 순식간에 팔려서 몇 시쯤에 오면 마스크를 살 수 있다”고 말해 주기가 어렵다”며 눈살을 찌푸렸다.

종로2가에서는 마스크를 두 겹으로 낀 어르신도 만날 수 있었다. 시민 김모(68) 씨는 “옛날에 폐렴을 앓았던 적



지난 24일 종로구에서는 마스크를 두 겹으로 낀 시민을 만날 수 있었다.



지난 24일 오후 종로구의 한 약국에서는 보건용 마스크가 품절돼 천 마스크만 판매하고 있었다. /김현정 기자

이 있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더 무섭다”며 “이 동네에는 코로나19에 걸린 사람도 많고 해서 아무래도 마스크 한 개로는 안심이 안 돼 두 개를 한꺼번에 썼다”고 말했다.

종로1가에서 경복궁역을 지나 옥인동으로 이동하기 위해 7022번 버스에 올라탔다. 시민들은 버스에 타자마자 카드 단말기 옆에 비치된 세정제로 손을 소독했다.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돼 서인지 사람들은 버스 안에서도 마스크를 벗지 않았고 손잡이나 안전봉도 최대한 잡지 않으려 애썼다.

직장인 윤모(32) 씨는 “종로구에서 코

로나 환자가 10명이나 나와서 정말 불안하다”며 “버스 손잡이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식당이나 카페 화장실도 가기 조심스럽다”며 울상을 지었다.

종로 지하문로에 위치한 옥인파출소 문 앞에는 “코로나19 관련 종로구 일대 확진자 발생 및 국내 확진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화장실 사용 시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 달라”는 당부의 글이 붙어 있었다.

파출소 옆 종로구 보건소 뒤편에는 선별진료소가 운영되고 있었다. 하얀색 방역복을 입은 보건소 관계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이곳에 온 사람

들을 안내하고 있었다. 오후 4시 20분경 방역차가 보건소 일대를 소독하기 위해 들어왔다.

종로구 보건소 관계자는 “현재 보건소가 폐쇄돼서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며 “일반 진료는 안 되고 코로나19 관련 선별진료소만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종로구 보건소는 결핵관리를 제외한 만성질환, 건강검진, 물리치료 등의 진료 업무를 중단한 상태다. 서울시는 24일부터 보건소의 기존 진료를 중단하고 선별진료소 기능을 강화해 24시간 운영하기로 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공든탑 무너지나... 일회용품 재등장

서울시, 일회용품 한시적 허용 소비자-업체간 일부 혼란 야기 친환경 정책 경각심 느슨 우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커피전문점에서 사용이 금지됐던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 다시 등장했다. 감염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지만 친환경 정책에서는 ‘뒷걸음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친환경 움직임이 확산하며 일회용품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였으나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다시 일회용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현재 식품접객업소 내에서는 플라스틱 소재 일회용품 컵 사용이 불가능하다. 종이컵은 올해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다수 커피전문점에서는 자발적으로 사용을 지양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달 초 고시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시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중접객업소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외국인들의 방문이 잦은 공항, 항만, 기차역, 터미널 인근을 규제 완화 대상 지역으로 꼽았다. 이에 충북 청주시·충주시, 인천 부평구, 대구 중구, 서울 서초구 등은 관내 전체 카페와 식당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당초 서울 서초구 등은 관내 전체 카페와 식당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입장발표가 늦어지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침이 달라 서울 다수 카페와 식당에선 일회용품 사용이 전격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매장 내 일회용품 허용 여부가 동네마다 다르다 보니 소비자의



한 커피전문점의 일회용 컵 /김민지 기자

불편도 가중됐다.

그러나 서울시가 지난 24일부터 서울시 내 모든 다중접객업소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가함에 따라 소비자들과 업체의 혼란은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른 조치로 허용 기한은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다.

이번 조치는 다회용 식기를 사용할 경우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나온 예방책이다. 그러나 플라스틱 줄이기, 환경 규제 등 사회 분위기와 정책이 정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각심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도 있다.

서울 서초구 A커피전문점 직원은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매장 방문 고객 중 일회용 컵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며 “서울시 차원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허가해줘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안이 중대한지라 다회용품 사용을 걱정하는 고객 많다”며 “하지만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커피전문점은 식기세척기로 고온의 물을 사용해 오랜 시간 다회용 식기를 세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지 기자 kmj@

## 불황 모르던 명품도 코로나19에 맥 못쐬

계획구매 많아 외부영향 적었지만 경보단계 ‘심각’ 격상하자 매출 뚝 전체 매출 39.5%, 명품 19% 줄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기만해도 마스크 쓰고 줄서서 기다렸던 명품 매장이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에 결국 고개를 숙였다.

◆지역감염 확산 전까지는 ‘나홀로 성장’ 지난 1~23일 전년 동기 대비 주요 백화점의 화장품, 패션, 식품을 비롯한 전체 매출이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그러나 해외 명품은 유일하게 두 자릿수 매출 증가율을 나타냈다.

2월 중순만 해도 명품관은 평소와 차이가 없었다. 주요 백화점에는 명품 매장 앞에 줄을 서서 대기하는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매장에 비치된 손소독제, 그리고 매장 직원들이나 매장을 찾은 손님들 모두 마스크 및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있었다는 것. 지난 11일에는 기다리던 제품이 들어왔다는 소식으로 잠실 롯데백화점에 비뉴엘 샤넬 매장에 100여명의 대기 인원이 몰린 바 있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고가의 유명브랜드 제품은 중동구(중·동·남구)보다는 목척(목동·척동)에 소비를 하는 특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입고 예약제’ 등 오래 전부터 계획해서 구매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외부 환경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른 소비재의 경우 코로나19처럼 위험한 상황에서 굳이 오프라인으로 가지 않아도 대체할 수 있는 채널 있다. 그러나 명품의 경우 오프라인 매장에서



신세계 백화점 영등포점 명품관의 25일 오전 모습이다. 코로나19 사태 전에는 줄을 서서 입장할 정도로 소비자로 가득 차 있었지만, 현재는 한적한 모습을 보인다. /조효정 기자

실물을 보고 구매해야 한다. 명품은 오랜 시간 준비해온 확실한 동기화 제품이므로 코로나19를 비롯한 영향에도 소비의 가변성이 적다”고 부연했다.

K대 경제학과 교수는 “명품 매장은 한 번에 입장할 수 있는 인원을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인구 밀도가 낮은 점도 코로나19 여파를 피해갔던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결국 피하지 못한 코로나19 여파 나 홀로 성장을 이어가던 해외 명품도 결국 경보단계 ‘심각’을 겪은 지난 22~23일 기준으로 매출 감소세로 돌아섰다. 현대백화점의 1~23일 전체 매출(누계)은 전년 대비 11.7% 줄어든 데 반해 명품 매출은 9.3%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 주말인 22~23일에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전체 매출이 39.5% 감소한 데 이어 명품도 19.1% 줄었다.

롯데백화점은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간 여파로 지난 주말 3일간 소공동 본점을 휴점해 2월 전체 매출 집계가 불가능하다. 소공동 본점을 제외하고 지난 17

일부터 23일까지 전체 매출이 20.4% 감소, 명품 10.4% 증가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지난 주말 22~23일 기준으로 전체 매출은 작년 동기 34% 감소하고, 명품은 2.2%로 증가율이 크게 줄었다.

명품 코스메틱 B브랜드 매장을 방문한 정 모(31) 씨는 “이렇게 사람이 적은 때일수록 명품 의류 제품을 맘편히 착용해 보고, 명품 코스메틱 제품은 다양하게 테스트해볼 수 있어서 좋다”며 “그런데 사람이 적은 걸 보니 나도 두려워진다”고 말했다.

◆소비 양극화 심화되나 성태운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전부터 국내 경기악화로 소비 양극화가 이미 진행된 상태였다. 이전부터 부유층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사치 소비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 일반 소비층은 생필품만을 구매했고, 상위 소득층은 고가의 제품 소비가 이뤄졌었다”며 이번 명품 소비의 특이한 패턴이 코로나19만의 영향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조효정 기자 princess@